

## 자주국방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 전력 확보를 위한 융합·혁신형 국방R&D 확대 추진

- 미래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미래도전·민군협력R&D에 집중 투자
- 제54차 「The 100 현장경청프로젝트」, 국방과학연구소(ADD) 현장 방문

기획예산처는 '26. 4. 30.(목) 오후 2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하여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미래선도기술 확보를 통한 방위력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정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밀착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00곳 이상의 예산 현장을 방문하는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프로젝트」 제54차 일정으로 기획되었다.

### < 국방과학연구소 현장방문 개요 >

- 일시/장소 : '26.4.30일(목) 14:00, 국방과학연구소(대전)
- 참석: (정부) 기획처 예산실장,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방위력강화예산과장 등  
(국과연) 연구소장, 연구부소장, 연구계획부장, 정책기획부장 등

이번에 방문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방 과학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선도하고 자주국방 기반을 뒷받침하는 우리나라의 국방 분야 핵심 연구기관이다.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드론, 유·무인복합 체계 등 첨단기술이 전장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최근의 전황을 소개하면서,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한 선제적인 첨단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그동안 방위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방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가 글로벌 군사 강국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자주국방 기반 강화를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국방 분야 투자 규모: ('25) 612,469억원 → ('26) 658,642억원 (+7.5%)

특히 “AI,드론,로봇,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에 대비한 최첨단 전력의 조기 확보를 위해 국방R&D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특히 핵심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방 R&D 투자 규모: ('25) 49,610억원 → ('26) 59,130억원(+19.2%)

이어서 “국방 R&D를 통한 첨단 전력 확보를 위해서 민간의 혁신 역량과 군의 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민군기술협력과 같은 개방·융합형 R&D를 중점 지원하는 한편, 미래전에 대비하여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혁신·도전형 국방 R&D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민군기술협력: ('25) 692억원 → ('26) 963억원(+39.0%)

미래도전국방기술: ('25) 2,503억원 → ('26) 3,494억원(+39.6%)

아울러 “첨단기술을 조기 전력화하기 위해 신속시범 사업도 확대하는 한편, 국방 기술이 군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으로 확산·파급되어 산업 전반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이전과 활용 촉진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 신속시범: ('25) 984억원 → ('26) 1,103억원(+12.2%)

기획예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26~'30년)에 반영할 국방 R&D 투자 방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방위력강화예산과	책임자	과 장	김민석 (044-214-3170)
		담당자	주무관	이영우 (fox6733@korea.kr)